

제교육 자료집 《 사 명 》

「한 편의 시」 ‘사명’	6
1. ‘사명’의 의미	7
1) ‘사명’	7
2) ‘사명’은 직책, 직위, 의무, 임무 그리고 운명	7
3) 분복	7
4) 달란트	8
5) 삼위를 사랑하며 하는 일	8
6) 복음을 전하는 것	9
7) 육적인 할 일과 영적인 할 일	10
2. ‘사명’의 가치	12
1)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러러보는 것	12
2) 사명을 귀하게 봐야 한다	12
3)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권세를 잡는다	13
4) 사명을 행하게 함으로 축복하신다	14
3. ‘사명자’	16
1)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할 자	16
2) ‘사명자’	16
3) 사명자가 해야 한다	17
4)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최고의 일꾼이다	18
5) 섭리 안에서 쓰이는 자는 모두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18
6) 하나님은 모두에게 개성대로 사명을 맡겨 놓으셨다	19

7) 깨달고 행하는 자, 본 자가 사명자다	20
4. 사명의 자세	22
1) 사랑으로 해야 한다	22
2)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된다	22
3) 매일 꾸준히 그때그때 해야 한다	23
4) 작은 일은 작은 시간에 큰일은 큰 시간에 해야 한다	24
5) 빠른 구름	26
6) 일 할 때 동시에 하라	27
7) 할 일을 찾으려 해야 한다	27
8) 일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	28
9)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화목하게 같이 해야 한다	29
10) 서로 알아주고 칭찬도 해 주어라	31
11) 겸손함과 긍휼함으로 해야 된다	32
12) 충성하여라	32
13) 새롭게 해야 된다	33
14)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초근초근 해나가야 한다	33
15) 사명을 다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34
16) 끝까지 해야 한다	35
17) 차원을 높여 해야 한다	36
18) 한 번에 잘해라	37
19) 현재에 잘 해야 됩니다	37
20) 순서 있게 해야 한다	38
21)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해라	39
5. 사명을 주는 것, 사명을 줄 때	40
1) 사명도 나누어서 같이 해야 한다	40

2) 개성과 재능, 소질대로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하라	41
3) 자기를 만들고 성장한 자들에게 사명을 준다	42
4) 겪은 자 중에서 유능한 자를 뽑아 써야 한다	43
5) 인재를 찾고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44
6) 회개하여 깨끗한 자, 본이 되는 자를 써라	45
7) 성장도 안 됐는데 사명을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	46
8)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46
9) 자기가 좋아하는 자만 세우지 말아야 한다	47
10) 작은 생명, 큰 생명에 맞게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48
6. 조직 운영	50
1) 군대, 군인	50
2) 별, 개미	51
3) 장기 (將棋)	52
4) 운동 (축구, 배구 등)	52
5) 인체, 지체	53
6) 줄다리기	55
7) 조팀구단	55
7. ‘사명’할 때 문제와 유의 사항	57
1)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라	57
2) 일의 리듬을 잃지 말고 해라	57
3) 사명의 선을 넘어서 행하면 안 된다	58
4) 죄의 문제와 회개	59
5)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라	60
6)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말아라	60

8. 사명 전환	62
1) 때마다 전환하며 새롭게 해라	62
2)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명자에게 맡기게 된다	63
3) 사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내려놓고 개인 신앙이나 하라	63
4)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자들, 자기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 하자	64
5) 자기가 뒤집어져야 된다	64
9. '사명'사연과 실천	66
1) 직책과 간판	66
2)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67
3) 더 크고 웅장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68
4) 정밀하게 분명하게 섬세하게 해야 한다.	68
5) 절대 <필요한 삶>만 살기다	69
10. '사명'과 성경	70
11. '사명'과 성경 인물	76
1) 예수님과 열두 제자	76
2) 모세	76
3) 요셉	77
4) 사울 왕	78
5) 사도 바울	78
12. '사명'과 월명동	80
1) 월명동은 하나님 구상대로 삼위와 같이 개발했다	80
2) 위치가 중요하다	80
3) 돌 보화처럼 사명도 귀하게 여겨라	82

4) 낙타바위	83
5) 구상 소나무, 몸부림의 결작술, 낙타바위	83
6) 서어나무 뿌리왕	84
7) 개인은 '개성의 왕'“단체의 왕”	84

「한 편의 시」 ‘사명’

인생은 책임을 진 자가
그 책임을 다 행해야 하고
사명은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다 해야 하지.

그러니
십자가를 질 자가 아니진다면
그 누가 지고 가라

에덴 동산의 루시퍼처럼 사명 다 못하고
자기 책임 분담 안하고
천벌 어기면 악마가 되고 말지

그러니 해가 떠서 지도록
해가 떠서 밤길이 지나 동쪽에 다시 뜰 때까지
땀 흘려 인생의 몸부림을 쳐 가며
자기 책임 자기가 다 해야지

자기 책임 다하는 자가
아름다운 오늘을 맞고
인생의 제 할 일을 다하는 자가
내일의 원대한 꿈을 이루고
자기의 사명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늘은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주지.

1. ‘사명’ 의 의미

1) ‘사명’

- 사명이 보석이다.
- 사명이 영광이다.
- 사명이 자기 생명과 같다.
- 사명이 자기 할 일이다.
- 사명은 죽기 전까지 받은 명이다.

2) ‘사명’ 은 직책, 직위, 의무, 임무 그리고 운명

사명이란,
직책 혹은 의무 혹은 임무다.

사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따지면 직위, 임무라고도 하고,
세상 입장에서 따지면 운명이라고도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임무이자, 운명이었다.

3) 분복

분복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사명과 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준 능력을 짧은 날에 써서 저마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소질과 재능대로 분복(分福)을 주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좋은 씨를 보관만 하고 있는 자와 같고,
행하는 자는 씨를 뿌려서 과수원도 이루고 황금벌판을 이뤄,

기뻐하며 사는 자와 같습니다.

4) 달란트

주인에게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감사하여 ‘두 달란트’ 를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도 감사하여 ‘다섯 달란트’ 를 더 남겼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도 더 남기지 못했다.
섬리사에서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가지 사명을 받은 자’ 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섯 가지 사명을 받은 자’ 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 가지 사명을 받은 자’ 로
자기를 관리하며 구원과 사랑휴거를 이루는 일을 맡겼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주인이 종들에게 개성대로 일을 맡긴 후에 그 행한 대로 대해 준 말씀이다.
주인은 <소질과 재능과 능력>대로 일을 맡기고, ‘행한 대로 대가’ 를 주었다.
<맡긴 일을 잘한 자들>은 그 대가로 ‘일을 또 맡기는 축복’ 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살게 해 주는 큰 축복’ 도 받았다.

5) 삼위일체 사랑하며 하는 일

1.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자기에게 믿고 맡기신 일을 보면 된다.
2. 세상에서 사람끼리도 믿고 사랑할수록 큰일을 믿고 맡긴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보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있다.
4.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큰일도, 작은 일도 안
맡기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믿고 맡기신 것은 자기를 절대 믿고 사랑
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대화하며 살아야 걱정하지 않으신
다.
5. 하나님은 신이시라 육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믿어야 된다.

<삼위일체가 사키시는 일>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 애인에게 사키는 일 정도’
다.

고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의 힘’ 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니, 상대도 ‘자기 일’ 인고로 ‘사랑’ 으로 해 줍
니다.

하나님은

- <사랑>하기 때문에 ‘일’ 을 맡기십니다.
- <믿으니까> ‘일’ 을 맡기십니다.
- <실력>이 있어서 ‘일’ 을 맡기십니다.

6) 복음을 전하는 것

부지런히 시대 복음을 전해워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해야 된다.

10.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휴거했으니,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이
다.
11. 복음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지 못한다.
12. 복음은 하나님의 운이다. 복음을 절대시하면, 이에 따르는 축복을 절대 받
는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줬다.

그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직위와 사명을 줬다.

가정국, 장년부,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에게
복음의 사명을 다 주고, 각 부서 사명도 줬다.

13. 이 시대 섬리인들에게 사명이 무엇이나고 하면, “목사다. 강도사다. 전도사다. 회장이다. 장로다.” 하며 각종으로 말한다. 이런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는 무슨 사명이나고 묻는다.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다. 이로 인해 계급과 직위가 결정된다.

14.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받았다.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높은 사명이다.

15. 이 세상에서 ‘시대 복음의 사명’ 같이 큰 사명도 없다. 지역장,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지역장, 각 부서장, 교사 모두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사명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매임이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안다.

16. 신약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전하다가 죽었다. 그로 인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살고 있다.

할 일 중에 꼭 할 일이 사랑의 세계의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여 많은 생명들을 낳는 일이다.

생명들을 기르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시대 천 년 혼인잔치를 하며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시대 말씀>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육’ 이고 ‘사명’ 입니다.

• 가르쳤어도,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또 가르쳐서 제대로 인식하게 해 줘야 됩니다.

7) 육적인 할 일과 영적인 할 일

3. <육적인 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안의 영적인 할 일>은 너무 많다.

이는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한 일’ 이다.

4. <육의 일>은 ‘육이 누리고 마는 일’ 이지만,

<영의 일>은 ‘영이 영원히 누릴 것을 두고 육신이 할 일’ 이다.

2. ‘사명’ 의 가치

1)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리러보는 것

1.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러보는 것’ 이다.

2. <그때그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힘’ 을 받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게 된다.

3. 저마다 맡은 <사명의 일>을 해야만, 독수리같이 가물가물 올라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리러보는 것이다.

6. <왕을 우리러보는 자>는 ‘왕이 시킨 일’ 을 충성으로 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러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일’ 을 충성으로 한다.

8.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러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역사의 일’ 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

9.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을 만들고, 지난 40년 동안 ‘선교하여 생명을 이끌어 온 것’ 은 하나님을 우리러보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을 우리러보는 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믿고 행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믿다가 말고 제 갈 길을 간다.

2) 사명을 귀하게 봐야 한다

대부분 무슨 일을 맡으면 귀하게 봐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일을 안 하면 전체가 다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섬리사에서 <사명>을 맡았어도 귀하다는 것을 보편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많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사명을 하는 것이 뜻인가?” 한다.

하나님의 뜻이 ‘환경’ 에 따라 변하겠느냐? ‘자기 마음’ 이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도 사명을 멀리하게 되고, 사탄은 이를 알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

대개 보면 섭리사 안에서 하는 일은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 섭리사 안에서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이라면 이 사명보다 더 큰 자가 지구촌에 어디에 있나? 솔직히 말해서 더 큰 자가 어디 있나? 더 큰 명예가 어디 있나?” 합니다.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명예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영화보다 더 큰 영화가 어디 있나?” 알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별가나? 나는 안 부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가요? 나 안 부럽게 생각합니다.

3)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권세를 잡는다

<육신>이 각 분야별로 날마다 조금씩 더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기 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기 사명>대로 안 하면, ‘영’ 이 안 크다.
사명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의 영을 보면,
어른이 안 돼서 키도 작고, 소견도 좁고, 생각도 작다.
<자기 영>과 <영계의 자기 집>을 보아라.

<영계에서 영들의 권세와 명예와 위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의의 변류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고도 알지만
<핵심>은 ‘영의 미’ 로 영의 권세와 명예와 위치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의>에 따라서 ‘영의 미’ 로 빛나서 모두 우러러봅니다.
고로 ‘영의 미’ 를 보면, <영의 권세와 명예와 위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육의 세계를 권 자들>이 ‘육의 것’ 은 취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권세’ 와 ‘영의 것’ 은 못 씹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을 가지고 권세를 잡습니다.
<영의 세계를 권 자들>은 세상에서 정치·경제·예술을 권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씹니다. 이들은 ‘영원한 주권’ 을 취고 있습니다.

4) 사명을 행하게 함으로 축복하신다

<삼위일체가 주신 축복 중의 하나>는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시키는 것’ 이다.
고로 <삼위가 주신 일을 맡는 것>은 ‘축복’ 이다.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을 사랑하여 개성대로 일을 맡겨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축복을 받게 하신다.

사명이 중하다. 어떤 사명을 받고 충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명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 해당되는 축복을 해 주신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겨 놓고, 제대로 일하는지 보러 오십니다. 오셔서 ‘힘’ 도 주시고, ‘지혜’ 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 사람들도 <일>을 맡겨 놓으면, ‘자신의 마음’ 에 맞게 하고 있나 궁금하여 못 참고 와서 보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기시고, 3번은 꼭 오십니다.
 - ▶ <일을 시작할 때> 오십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십니다. 자기 주관대로 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일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 그리고 <맡긴 일이 끝날 때> 오십니다. 끝을 잘해야 되기에, 꼭 오셔서

- 보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기시고,
<알파 : 시작할 때>, <오메가 : 끝날 때> 오시고, <중간쯤>에 꼭 오십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점’ 이 있습니다.
 - ▶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종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 이 생깁니다.
- 일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궁금한 것’ 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일할 때>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하면,
 -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 특히, <삼위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 때로는 <할 일>을 하기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힘들수록, 고생될수록 ‘하늘이 주시는 상’ 은 큼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기록적인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건물과 환경’ 을 받게 됩니다.
- 하나님께 저 사람은 무엇을 행해서 저렇게 받았는지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못 하는 일>,
<최고로 힘들고 고생되는 일>을 한 자들에게 주는 대가니라.” 하셨습니다.

3. ‘사명자’

1)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할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상에 천 년 성약 역사를 펴기 위해 오셨다.
이를 위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예비하시고,
지금은 시대 신부가 되어 천 년 역사를 위해 일할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늘 <일할 자>를 찾으십니다.
<성약 천 년 역사>를 펴느라, ‘일꾼’ 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시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일’ 을 맡겨 오셨습니다.
▶ <구약 40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주인으로 대하는 종들’
에게
‘구약의 일’ 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인들>은 종의 입장에서 ‘종의 차원’ 만큼 마음도 심정도 쏟아서 일했습니다.
▶ <신약 20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하늘의 부모로 대하는 자
들’ 에게
‘신약의 일’ 을 맡겨 오셨습니다.
<신약인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 차원만큼’ 만 일했습니다.
▶ 이 시대는 <천 년 혼인 잔치, 사랑의 휴거역사의 때>이니, ‘사랑의 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시대 신부들
중’ 에서 ‘일꾼’ 을 뽑아서 일을 맡기십니다.
자기 재능대로, 개성대로, 충성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2) ‘사명자’

2. <사명자>는 ‘보는 눈’ 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이 다르고 ‘기술과 능력’ 도 다르다.

3. <사명자>는 기어이 한다.
4. <사명자>는 자기 일같이 한다.
5. <사명자>는 뭘 주나, 안 주나 좋아서 행한다.
6. <사명자>는 즐기면서 한다.
7. <사명자>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녕코 한다.
8. <사명자>는 ‘전문자’ 다.
9. <사명자>가 한다. 다른 자는 생각도 못 한다.
10. <사명자>는 어디 가도 표가 난다.
11. <사명자>는 누가 미쳤다고 해도, 의식하지 않고 좋아서 한다.
12. <사명자>는 정말 빨리한다. 순간 해 버린다.
13. <사명자>가 하면 속 시원하게 한다. 고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만족해하고
속 시원해한다.

5. <사명자>는 사명에 불타서 해야 한다.
6. <사명자>는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다.
7. <사명자>는 더 잘하도록 배워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8. <사명자>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도록 기도하여 그 생각에
맞춰야
된다.
9. <사명자>가 하더라도 ‘최고의 방법’ 으로 하느냐, ‘보통 수준’ 으로 하느냐
가 문제다.

3) 사명자가 해야 한다

1. <사명을 받지 않고도 행한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사명을 받고 연구하여 유능하게 행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 그래
야 <일을 맡긴 자>도 마음에 들어 좋아하고 협조하게 된다.
2. <사명자>가 행해야 맘이 놓인다. 질서가 있다. <다른 자>가 하면 몰라서 잘
못 한다.
4. <사명 받은 자>는 ‘주인에게 건물 설계 도면을 받은 자’ 와 같아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잘 짓는다. 그래도 다 한 후에, 제대로 했는지 주인에게 검토 받는
다.

5. <사명자>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준다. 고로 절대 ‘사명자’ 가
해야 된다.
7. <사명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평소애 하던 대로 잘한다.
8. 축구에서도 <골인의 사명자>는 ‘스트라이커(striker)’ 다. 그를 통해 골을
가장 많이 넣게 된다. 고로 그에게 볼을 잘 패스해 준다.

1. 하나님께 사명 받은 자가 해야 한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사명 준 자를 돕고 행하신다.
3. 만일 사명 받은 자가 못하면, 가르쳐서라도 하게 하신다.

4)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최고의 일꾼이다

<자기 정신과 생각>을 육신이 행하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대로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뜻>도 제대로 이룬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일꾼>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삼위의 몸이 되는 자격자’ 가 됩
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 하십니다.

5) 섭리 안에서 쓰이는 자는 모두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섭리 안에서 많이 쓰이는 자나, 섭리 안에서 적게 쓰이는 자나
모두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강한 자가 되고 더욱 크고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명자, 봉사 사명자, 경제 사명자, 국방 사명자, 건축 사명자, 전도 사명자, 기도 사명자, 게시 사명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귀하다.

◆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고로 ‘교인들 모두’ 귀히 여겨야 됩니다.
◆ 어느 때는 ‘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어느 때는 ‘큰 사람’이 못 하니 ‘어린 자’를 시켜
그가 행하여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어려도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6) **하나님은 모두에게 개성대로 사명을 맡겨 놓으셨다**

7. 하나님 앞에 개성으로는 항상 자기 한 명밖에 없다.
고로 자기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8. 하나님이 택하여 사명을 준 자가 해야 된다. 그가 맡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꼭 그가 다시 하기를 원
하신다.
9. 하나님은 모두에게 개성대로 사명을 맡겨 놓으셨다.
자기가 안 하면 대신 할 사람이 없다. 고로 꼭 자기가 해야 된다.
10.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자기가 계속해서 안 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
이 홀로 행하셔야 된다. 고로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해라. 하다 보면 잘하게 된
다.
11.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을 사랑하여 개성대로 일을 맡겨 주시고, 그 일을 행
하게 함으로 축복을 받게 하신다.

섬리의 사명을 맡은 자들아 너희 맡은 것이 작은 일이나,
마을 일을 맡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도시 일을 맡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 민족을 대표해서 맡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섬리 세계는, 하나님 세계의 일을 맡은 것이다.
작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크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그릇에 맞게 맡겼노라.

7) **깨닫고 행하는 자, 본 자가 사명자다**

8. 영적으로 보면 ‘할 일’이 정말 많다.
하루 10분도 놀 시간이 없다. 다 ‘자기를 위해 할 일’이다.
9. 깨닫고 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고 싶을 정도의 귀한 일들’이
다.
10. 깨닫고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해서 그 일을 먼저 해야 다른 일도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이다.

2. 사람이 근본을 깨달을 때까지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그 차원을 못 벗어나게
된다.
깨달은 자는 즉시 행하여 말도, 행실도, 생각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3. 깨닫지 못한 자는 다른 자가 도와줘도 보통으로밖에 못하지만, 깨달은 자는
즉시 스스로 행하여 얻는다.
4. 깨달아야 10배, 100배 힘을 받고 그 일을 즉시 행하게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은 온전하게 깨달은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6. 깨닫기 위해 기도하면, 자기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자를 깨닫고 찾게 되고,
그 일의 사명자가 깨닫고 오게 된다.

2. <행하는 자>만 ‘답’을 받고, 깨닫고 안다.
3.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자>만 그 뜻을 깨닫고 안다.
4.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과정’에서 하나씩 깨닫게 된다.

1.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개인적
단위로, 가정적 단위로, 민족적 단위로, 세계적 단위로 얼마나 행하였는지 보면

안다.
2. 성경대로 행한 만큼 능력을 받은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같이 형제 사랑, 원
수 사랑, 만물 사랑을 한 만큼, 병든 자를 자기 몸같이 여기고 고쳐 주어 낮게
하고, 전도하여 생명을 살려 준 만큼 능력도 받고 사명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해 놓은 만큼, 존재한 만큼, 실적만큼 능력을 받은 것이다.

“<전문자>가 일은 해야 된다.” 전문자가 누구인지 아니까?
하는 사람이 <전문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평 잡는 것이 매다. 그것이 전문자다.” 평 잡는 것이 매입니다.
많이 해 본 사람이 전문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는 사람이 전문자다.”
“평 잡는 놈이, 평을 잡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새가 잡아왔어도 그것이
매다.”
매가 평 잡잖아요.
“전문자는 할 것이요.”
“전문자는 간단히 한다. 전문자이기 때문에. 전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다.”
그렇지요? 전문자가 아니면 오래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평 잡는 것이 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
문자다.”

71.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의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명’만 구한다. ‘보고 깨달은 자’가 하여라. 그에게 ‘사명’을
준다.
72. <본 자>가 ‘사명’을 받고 하는 것이다.

4. 사명의 자세

1) 바탕으로 해야 한다

왜 일하느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다.
사랑은 놔두고, 일 다 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면서, 일도 보고 성자도 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체계가 다르다. 영 체계다.

일을 하는 만큼 성자와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즉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성자와 사랑의 교통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
성자를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데, 일단 하면 사랑이 형성되겠느냐.
일과 사랑은 다르다. 사랑하기에 일도 해 주는 것이다.
사랑하고 대화해야 사랑이 형성된다.

2)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오시고, ‘천사들’도 옵니다.
•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 <섬리사의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섯 번 기도해야,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할 수 있다.
<기도>는 ‘대화’도 되고 ‘기도’도 된다.

15.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삼위의 일>을 속이 시원하게 해 주면, 삼위도 <너희의 일>을 속이 시원하게 해 주리라.” 하셨다.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려야, 삼위도 ‘우리의 속’이 시원하게 해 주신다.
16. <기도>해야, 저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하게 된다.

기도하고 ‘할 일’을 배워라. 깨달아라.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자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 일’을 주신다.

- 1. 할 일 없어도 할 일을 하여야 하다 보면 할 일이 생긴다.
- 2. ‘할 일’이란 ‘생각나는 것 기록하기’다.
- 3. 할 일이 없느냐. 진정 기도하라. 그럼 할 일이 생긴다.
- 4. 어떻게 할 일을 할지 모르겠느냐. 진정으로 기도하여라.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실행하신다. 그럼 네가 일생 동안 한 것보다 수십억 배 한 격이 된다. 기도는 일이다.

3) 매일 꾸준히 그때그때 해야 한다

매일 꾸준히 하여라. 그래야 힘들지 않다.
하다 말고 다시 하려면 아주 힘들다.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식었는데 다시 뜨겁게 하려면 힘들지 않느냐.
매일 하면, 행한 터전 위에서 행하니 쉽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긴 일을 1년, 10년 미뤘다 하고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꾸준히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쉽고, 지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표 나게 좋게 하려면,
<매일 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기도, 매일 대화, 매일 감사, 매일, 회개,
매일 말씀 듣고 행하기, 매일 찬양, 매일 관리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 선생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10년 동안 꾸준히 <잠언>도 쓰고 <말씀>도 쓰고 <관리>도 했습니다.
결국 해 놓은 것을 보니, ‘산’ 같이 커졌습니다.

4) 작은 일은 작은 시간에 큰일은 큰 시간에 해야 한다

- * 물을 떠 오듯 ‘한두 번 해서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만큼 <작은 목적의 일>입니다.
<큰 목적의 일>을 하려면 ‘여러 번, 꾸준히’ 해야 됩니다.
- * 10m 길을 내느냐, 100m 길을 내느냐,
1000m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수고’도, ‘내용’도 달라지지요?
- * 치즈를 만드는 데도 1~3년이 걸리지요?
- * <단순하게 해도 되는 작은 일>도 있습니다.
<한 시간, 열 시간, 며칠 걸려서 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씩 걸리는 큰일>도 있습니다.
<큰일>을 놓고서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행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 1. 첫 시간에 안 지쳐야 둘째 시간에 안 지친다.
- 2. 오늘 지치게 하니, 내일을 맞아도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다.
- 3. 일이 많으면 지친다. 가령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는데 평소보다 짐을 더 지면, 무거우니 지쳐서 몸부림을 친다. 그러다 하루해를 넘긴다. 다음 날이 돼도, 어제 지치게 일을 해서 피곤하니 일하기가 싫고, 또 ‘지친 시간’으로 보내니 그날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그러다 그다음 날이 되면, 전날 지쳐서 못 한 일까지 모두 해야 되니 ‘이틀 치의 일’을 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또 지쳐서 일을 하다 하루해가 넘어간다. 이같이 하는 자는 일을 오래 못 하고, 해도 ‘일’을 무겁게 보고 ‘하나의 노동’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병이 나기도 한다.
- 4. 일을 줄이려면, 그중에 ‘작은 일들’을 틈틈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
- 5. 시간의 틈이 있으면, 그때 ‘작은 일’을 해서 없애야 된다.

6. 작은 일이 ‘큰일’을 할 때까지 따라다니면, 큰 짐을 질 때 작은 짐까지 더 얹히는 것과 같아서 무게의 적량을 넘기니 지치게 된다. 고로 작은 일은 ‘작은 틈 시간’에 썩 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 큰 시간에 ‘큰일’을 하게 되니, 안 지친다.

7. 일을 하다 보면, ‘손’에서 벗어나고 ‘양어께’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무거워서 지친다. 이때는 조금만 덜어도 가뺌다.

8. 일의 무게는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것과 같아서 저울에 ‘작은 것’만 올려도 무게를 엄청 받듯이 ‘작은 일’로 인해 ‘일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9. 사명자들도 일을 몰아서 하면 지친다. 틈 시간을 쪼개서 그때 작은 일들을 자주 해서 없애야 한다. 부서나 단체, 기관을 만나야 할 시간에 ‘개인’을 만나서 시간을 쓰면, 나중에 ‘큰 시간’이 들어가야 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 ‘작은 시간’만 쓰고 대충 끝낸다. 그러니 모두 불만이다. 실패다. 작은 일에는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 큰일에는 ‘큰 시간’을 투자하여라. 그러면 하루 일이 가벼우니, 거뜬히 지고 간다. 고로 다음 날도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 이는 ‘일하는 기술’이며 ‘일하는 지혜의 비법’이다.

10. 밀린 일이나 작게 남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날 할 일’과 함께 지고 가야 하니, 일들이 어께를 짓눌러서 지치게 한다. 절대 그 날 할 일은 그 날 해야 된다. 작은 일은 ‘틈 시간’에 순간순간 해 버려야 된다.

11. 작은 틈 시간에는 ‘큰일’을 못 한다.

12. 큰 시간으로 ‘작은 일’을 하면, 힘이 안 든다. 그러니 작은 일은 잘한다. 그러나 큰 시간을 ‘작은 일’에만 쓰니, ‘큰일’을 못 하고 서산에 해가 넘어가게 된다. 고로 그날은 ‘시간 사용에 실패한 날’이 된다.

13. 전체 시간 중에 ‘작은 것’은 채치 있게 하면 된다.

14. 절대 큰 시간은 ‘큰일을 하는 데’ 쓰고, 작은 시간은 ‘작은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다. 큰 시간을 ‘작은 일을 하는 데’ 쓰면, 겨우 ‘작은 일’만 하게 된다.

15. 시간 축지다. 빨리하면, ‘축지’다. 단, 분별하고 쪼개서 하기도.

16. 큰돈을 ‘작은 물건을 사는 데’ 쓰면, 남은 돈으로는 ‘큰 것’을 못 산다. 톨돈으로 ‘작은 물건’을 사듯이, 작은 시간으로 ‘작은 일’을 해야 된다.

17. 작은 일이 밀려서 몇 개가 뭉치면, ‘큰일’을 하는 데 치명적인 암초가 되어 자기를 지치게 한다. 큰 시간을 가지고 ‘큰일’만 하면, 절대 안 지친다. 섭리 일도 그러하다. 작은 일에 ‘큰 시간’을 다 쓰니, ‘선교나 교회 운영, 부서 운영과 같은 큰일’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개인 삶도 그러하니, 모두

근본적으로 체계를 고쳐라.

18. 삶의 일에 지치면, 하루 실컷 일을 했어도 다음 날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힘들어서 하루 쉬면, 그날 일을 못 했으니 ‘그날 것’이 밀리고, 다음 날 ‘전날 못 한 일’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 쉴 때 얻은 힘을 다 투자해도 힘들고 버겁다. 겨우 했어도 할 일이 또 남는다. 매일 일을 하되, ‘작은 일’은 ‘틈 시간’에 해서 없애기다. 큰 시간에 ‘큰일’을 하면, 무게가 적당하니 간단히 하게 된다. 신앙의 공작을 쌓을 때도 이같이 시간 투자를 하여라.

5) 빠른 구름

◆ <빠른 자>가 ‘많이’ 합니다.

◆ <생각>이 빨라야 <몸>도 빠릅니다.

◆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아는 자>가 ‘빠른 자’입니다.

◆ 하나님은 <빠른 자>를 쓰고 행하십니다. 곧 ‘빠른 구름’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뜻’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 <빠른 자>가 ‘발에 숨겨진 보화’도 발견합니다.

◆ 최고로 빠르려면 - ‘영과 혼’으로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 되어 행하기 -입니다.

◆ <육적>으로 생각하면, 빨라도 ‘육 차원’으로만 빠릅니다.

◆ <영과 혼>으로 깊이 기도하여 빛보다 빠르게 번쩍번쩍 빨리 생각하고 행하기 -입니다.

◆ 어떤 사람이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는데, 하루는 <소>가 ‘외양간’에서 없어졌습니다.

순간 생각하니 도둑이 몰고 간 것 같아서 그 즉시! 산 너머에 있는 길로 쫓아갔습니다.

숨 가쁘게 뛰어가 보니, 도둑이 <흙처 간 소>를 ‘차에 싣기 1분 전’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즉시! 큰 뭉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소>도 찾고, <도둑>도 잡고, <차>도 뺏었습니다.

1~2분 빨리해서 성공했습니다!

◆ 어떤 목적을 두고 그냥 태연하게 하면, 시간이 5~7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하면, 평소보다 3배는 빠르게 합니다.

◆ 빠르게 하되 집중해서 하면,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더 잘 돌아가서 더 좋게 하게 됩니다.

◆ 천천히 태만하게 하면, 생각도 그 차원의 급으로 돌아갑니다.

◆ 하나님은 빠르게 행하시니, ‘빠른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십니다.

6) 일 할 때 동시에 하라

일은 할 때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때 빼놓으면 안하고 맡게 됩니다.

동시에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안하면 그것이 남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겪고 경험한 것을 말하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할 때 못한 것은 거의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손이 닿을 때 갑나무에 감 따러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같이 있는 감 따야지, 안따고 내려오니가 아이고 저저 몇 개 때문에 올라가? 그냥 새들 주자. 하고 못맙니다.

생명 쟁길 때는 성령이 감동했을 때입니다.

감동 켜를 때는 동시에 해야됩니다.

7) 할 일을 찾으며 해야 한다

83.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마다 지금 할 일들이 모두 엄청나게 있는데도, 자기가 게으르고 하려고 안 하니 그 위치에서 그냥 살아간다.

84. 자기를 위해 할 일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태산 같은데, 찾으려 하지 않는다. 찾으면, 급해서 땀땀으로 미쳐서 한다.

2. 사명을 만들어라. 할 일이 많은 섭리사다. 누가 사명을 임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행하면 사명을 만들어 행하는 자가 된다.

3. 사명이 없으면 놀게 되니 사탄도 악도 침범한다.

4. 섬리사의 할 일들을 찾아보면 누가 안 시켜도 많고 많다.
5. 선생도 기성교회에 다닐 때 설교하고 싶어서 기도하니, 1년에 한 번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게 해 주었다. 고로 전도하고 다니면서 매일 설교했다. 이같이 내 사명을 만들었다.
6. 누가 주는 일반 하다가는 젊은 몸이 다 늙어 간다.
7. 저마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사니, 그 차원급에서 행하자.
8.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행하여라.
9. 할 일과 사명이 여기 있다고 말기는 자를 기다리지만 말고 기도하여라. 자기 할 일을 찾고 보면 너무도 많다. 찾고 행하면 이기는 삶이다.

8) 일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키신 일>을 행하여
자기 욕과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은 ‘영원’ 하다.

<자기 사명의 기쁨>입니다.
<시대 신부의 사명>, <증거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관리하는 사명> 등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 사명에 빠져서 사명과 일반 하지 말고,
일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서로 화동하며 하여라.
6. 일이 끝나면 그 일로 인한 보람도 낙도 있지만,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의 낙도 그리 큰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자는 안다.

1.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려면,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임을 깨달아야 된다.
2. 일이 낙이고, 사명이 낙이다.
3. 사명이 좋아서 행해야 보람이 있다.
4.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멀리

하는 자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시대 신부>가 되어 사니,
기뻐 뛰며 살아야 된다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 <시대 신부>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 뛰어야,
저마다 ‘말은 사명’을 하며 힘들어하지 않고, 매일 지겹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고, 힘들어 하면서는 매일 새벽부터 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 새벽부터 기뻐 뛰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성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귀하게 깨달아야, 매일 기뻐 뛰며
<삶의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고 더하며 살게 됩니다.
• 삶이 기쁘지 않으면, 저마다 ‘하는 일’을 줄이고 살게 됩니다.
<깨닫고 기뻐하며 뛰는 자>는
한 가지라도 더 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9)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화목하게 같이 해야 한다

6. 생각을 집중하면서 행해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7.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봐야 된다.
8.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살 세상이 못 된다.
고로 하나님은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해라. 확인하면서 해라. 세밀히 보면서 해라. 자기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보면서 해라.” 하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9. 같이 돕고 해야 훨씬 이상적인 것을 얻는다.

10. 하나님이 주셨어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같이 해야 웅장하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귀한 것을 얻게 된다.

앞뒤, 좌우 보고, 서로 하나 되어 하여라.
그래야 본인이 지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
축구 할 때 뭉쳐서 하듯, 모든 모임, 팀 뭉쳐서 하듯
서로 한 팀이 되어 자기 분야의 일을 하여라.
남의 것 터치하지 말고, 자기 것 뺏기지 말라.

교회에서도, 섬리사에서도 일하다 보면 각자 ‘개성’이 다르니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됩니다.
이 말은 ‘혼자서는 못 한다.’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섬리사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서 다 잘할 수 없으니, 모두가 하나 되어 협조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1. 하나님과 성령님이 <화목>을 말씀했으니,
어떤 이유도 대지 말고 ‘대화’로 다 꺼내고, 할 말 하고 풀어라.
그래야 땅에서 주니, 하늘에서도 풀어 주어 화목하게 역사하신다.
2.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서 안 풀린다.
3. 교역자와 교인들 간에 제일 많다. 다 이야기해라.
<말>로 ‘문제’ 생기고, <말>로 ‘화목’이 깨졌으니, <말>로 다시 ‘부활’ 시켜라.

28.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여 상대가 보는 약점을 모르고 무지로 행하면 화목이 깨진다.
29. 무지 세계, 상극 세계로 심정 몰라서 화목이 깨진다.
30. 약속을 어기면 화목이 깨진다.
31. 자기 식으로 하면 화목이 깨진다.

32. 서로 매일 대화해라. 그때 속 이야기 하고 풀어라.
33. 뒷사람이 어려워 밀의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으니 뒷사람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이다.
34. 사람마다 각각 ‘개성의 성품과 생각’ 이다. 고로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자도 있지만 못 하는 자도 있으니, 말 잘하는 자가 먼저 하여 속 이야기 듣고 풀어 줘라.
35. 말로 상처 주는 자는 상대 약점과 모순을 책망할 것으로 알고 말하다가 감정 상하게 하고, 속상해 토라지게 한다.
36.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 마음 문 닫게 하고 화목이 깨지게도 한다.

110. 폭포수같이 무조건 쏟아 내리는 웅장하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화목이다.
111. 물같이 부드러운 화목이다.
112. 폭포수 같은 화목, 하나님의 구상이다. 화목 수련회, 하나님의 구상이다.
113. <웃>에 ‘폭포수 같은 화목’을 세기듯, <마음>에 ‘폭포수 화목’을 새기고 살아라.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114. <화목의 노래>로 ‘화목의 용광로’가 돼라.

10) 서로 알아주고 칭찬도 해 주어라

- ◆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상대가 몰라주는 원인이 있다.
- 각자 ‘자기 인생 삶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일을 하니 ‘산맥’이 가려져 안 보인다.
- <일하는 골짜기>에 가서 ‘일해 놓은 것’을 보면 안다.
- 서로 그리함을 알고, 알아주고 칭찬도 해 주어라.
- ◆ <섬리사 일에 관심이 없고 일을 안 하는 자>는 ‘일하는 자의 심정’도 모르고 ‘해 놓은 것’도 모른다.
- <생각의 소경>이라서 그렇다.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듯이, 바로 보아라.
- 자기도 일해 보면서 겪어 봐야 ‘상대가 일한 것’도 알아준다.

성경의 인물들도 개성적으로 그들이 세운 공적을 찾아야 우리러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섬리의 형제들도 험뜯기만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야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11) 겸손함과 긍휼함으로 해야 된다

- ◇ 예수님 메시야도 그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 “섬기는 자가 돼라.” “겸손한 자가 돼라.”
- ◇ 형제의 잘못을 제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 ◇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돕고 기도해 주고, 없는 자가 있으면 서로 돕고, 잘 곳 없는 자들 데려다 제우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 줘야 됩니다.
- 그동안 이같이 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 ◇ 선생도 섬리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같이 10년간 했었고,
- 섬리사 시작하고서 45년 동안에도 계속 아픈 자, 병든 자, 정신병자, 우울한 자,
-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12) 충성하여라

7. 충성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한다.
- 하나님이 아예 택하셨으니, 재능과 소질이 있어 하게 된다.
8.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면, 누가 반대해도 행한다.
- 충성자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기 마련이다.
9. 자기 사명의 달란트가 작다, 크다 할 것 없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일을 맡긴다고 하셨으니, 자기 달란트가 작다고 걱정할 것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이

지구 세상에서 그 얼마나 크고 큰 것인지 알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5. 맡긴 일에 충성해야, 왜 사명을 맡겼는지 그 근본을 깨닫게 된다.
6. 맡긴 사명에 충성하여라. 사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

지도자가 불법으로 행하면,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 고치게 하신다.

- 일을 맡은 자들이 충성으로 해야, 개인·가정·교회·민족·시대가 화목과 화평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13) 새롭게 해야 된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고, 하던 일도 작년 같은 차원으로 반복하게 된다.

반복하는 삶은 ‘발전’도 없고,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7. <구시대>는 ‘그때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끝났고,
- <새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
8.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롭게 맡기신 일>을 해야 맞는다.
9. 빨리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라.
10. <월명동 개발 후 새것>이 오니, <개발 전 옛것>이 사라졌다.
- <새 시대>가 오니, <구시대>가 사라졌다.

48. 똑같은 은이라도 방법을 달리하여 차원 높게 쓰면 금같이 쓰여지고, 차원 낮게 쓰면 철같이 쓰여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49.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쓰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된다.

14)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초근초근 해나가야 한다

나는 예전에 밭에 가서 일할 때면 첫번째로는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였습니다. 두세시간씩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이상적이 겠구나’ 그렇게 되면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그냥 막 하면 안됩니다. 지렛대가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우서면다고 돌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 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렛대를 중간에 받치는 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고 잡아당겨야 합니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초근초근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빨리 끝나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고 천천히 초근초근 해야 합니다. 후닥닥 거리는 사람은 멀리 못 갑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단거리가 아니기에 그렇게 막 후닥닥거리면서 안합니다.

15) 사명을 다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공부하면, 어떤 문제도 답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연구하면 길을 압니다. ‘연구하면서 일들을 하라.’ 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 선생도 예수님을 20년간 연구하여 그를 알아보고, 성경도 연구해서 쫓 것입니다. 모두 맞지 않습니까. 고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깨닫고 완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 무조건 일하지 말고 모두 의논하고 연구해서 해야 합니다. 연구는 확인입니다. 확인이 연구입니다. 연구하고 하면 과학, 문명, 종교 역시 알질려 갑니다. 모두 신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더 좋은 일을 더 이상적으로 해야 더 얻게 된다. 반복되는 차원으로 똑같이 하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하는 것 같아서 새로움도 없고 얻는 것도 동일하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차원 높여 색다르게, 더 좋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다. 사명의 지혜와 지식이다.

지도자는 노력해라. 배워라. 지혜를 가져라. 지도자는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 이 없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배우는 태에 있어 지혜’ 가 없다. <배울 수 있는 실 가닥 같은 통로>라도 찾아서, 그 길로 배워라. <기도하는 목회자, 노력하는 목회자>는 ‘표’ 가 난다. 교회 전체가 힘내서 하고, 운영이 잘되고, 선교도 잘된다. 제때, 제 위치에서 뛰고 달려라!

16) 끝까지 해야 한다

13. 끝까지 가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오는 길에 역울함을 당한 것, 손해 간 것,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주시고, 또 목적지에서 그 목적을 위해 온 수도도 다 갚아 주신다. 14. 끝까지 가려는 결심과 행함이다. 15. 끝까지 가는 자가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게 된다. 16. 끝까지 가는 자는 섭리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17. 끝까지 가는 자는 섭리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5.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6.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끝까지 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끝까지 가야 되냐 하면, 끝까지 가야 완성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가는 자는 완전한 자들이다. 비틀거리고 가도, 거꾸로 가도 끝까지 가야 된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끝까지 안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100m 달리기도 끝까지 해야 1등, 2등, 3등을 분별한다.

신앙은 1등, 2등, 3등을 안 뽑고, 끝까지 가면 다 우승자가 된다. 끝까지 가야 열매가 열린다. 열매를 딸 수 있다. 끝까지 가야 집도 완공한다. 끝까지 가야 사람도 탄생한다. 끝까지 가면 성공이다. 과정에서 끝나면 미완성이다. 그런 자는 영도, 육도 그런 주관권에서 지금 살고 있다.

17) 차원을 높여 해야 한다

<차원>은 ‘군대의 계급’ 과 같고, ‘공무원의 급수’ 와 같고, ‘회사의 직급’ 과 같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차원’ 이 좌우됩니다.

비행기도 <차원,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못 날아갑니다. 사람도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차원>은 그냥은 안 높아집니다. <교육>해야 <차원>이 높아집니다.

전도도 차원 높여 하고, 교회 운영과 섭리사 운영도 차원 높여 하고, 설교도 차원 높여 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도 차원 높여 해야 힘들지 않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상적이다. 인생 차원 낮게 생각하고 행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 신약 - 성약’ 입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의 차이>는 ‘동 - 은 - 금’ 같은 차이입니다. <수석>은 1차원이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것이 <수석 바위, 형상 바위>였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이니 <월명동 지형>입니다. 월명동 지형을 보니 ‘사람의 여러 가지 형상, 별 형상, 하나님의 백보좌 형상’ 등 아름답고 신비한 형상들이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이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때마다 <한 차원씩>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한 차원>은 ‘조금만 더’ 하면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해서 <한 차원>씩 높이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차원을 높여도 써먹고 즐기는 날이 적어집니다. 고로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빨리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써먹고 즐기는 날이 많습니다.
 차원을 높여야 최고로 얻고, 최고로 보고, 최고로 쓰고 갑니다.
 조건을 세워 차원을 높인 자만 얻고 누리고 갑니다.
 모두 차원 높여 휴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 황금성>을 얻었으니,
 이제 거기서 이상적으로 살도록 ‘육’ 이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18) 한 번에 잘해라

10. 한 번에 잘해라! 할 때 흥정과 계약을 동시에 하거다.
 두 번째에 하려 하지 말고, 마치 산짐승 잡듯이 처음에 한 번에 잘하거다.
 11. 산짐승을 한 번에 못 잡으면, 그 짐승이 뛰어 도망간다.
 그때는 온 산과 온 대지를 다 누벼야 찾는다.
 12. 글만 읽지 말고, 깨달아라!
 13. 한 번에 잘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왜 한 번에 잘하라고 했는지 알아라.
 <그 기회>가 ‘한 번’ 이다.
 그 기회가 지나면 시간도 더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된다.

파리 잡는 것도 선불리 잡으면 못 잡습니다.
 한번에 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파리가 알고서 도망을 다닙니다.
 일을 할 때 두 번 세번 하면 배이상 힘이 듭니다. 가중된 탕감조건을 세워야 하
 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번째 못했으면 두번째는 가중된 탕감조건을 삼배
 사배해야 그 수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직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19) 현재에 잘 해야 됩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에 회개도 하고, 할 일도 하고,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라.
 그러면 지난 후에 옛것을 생각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것도 없는 것이다.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에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휘날렸어도, <현재>에 휘날려야 됩니다.
 <과거>에 어리고 미약했어도 <현재> 성장하여 잘하면 그 위치에서 귀히 쓰임
 받습니다.
 섬리사의 오래된 자들, 교역자들, 지도자들은
 <과거의 자기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모순>을 싹 고치고 <현재>에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들’ 이 더 좋게 됩니다.

20) 순서 있게 해야 한다

일을 해 봐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똑똑 해 버리는 것하고
 안 정해놓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정해놓고 하면 아니까 하고, 안 정해놔으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순서가 뒤바뀌면서 일을 하면 훨씬 적게 합니다.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놓고 해 봐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해 버리면 안
 돼요. 먼저 할 것은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거기 있는 되어진 일을
 갖고 또 다음 일을, 못 한 일을 마저 접붙여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 버리면 해놓은 일을 가지고 할 수 없고, 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른 삼고 못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꼭 하고, 나중 일을
 나중 꼭 해야 됩니다.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을 보면,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한다.
 모두 해야 될 일이지만, ‘일의 순서’ 가 있다. 이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생각이 나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만 하되,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최고의 일 하나’ 만을 선택해서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면 된다.

11.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다음 일’ 도 순서에 맞게 하게 된다.
 <먼저 할 일>을 먼저 안 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면, 시간이 안 맞는다.
 12.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짐 싸기’ 다. ‘먼저 옷 입기’ 다.
 <다음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 앞에 놓인 일>을 먼저 하거다.

21)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해라

8. 일을 할 때는 마치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하듯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해라.
 그래야 하고 나면, 모두 눈이 가고, 보고 만족하고 칭찬한다.
 9. 화장을 잘못해 놓으면 도깨비, 생쥐, 여우같이 된다.
 일도 그러하다. 노력하여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멋있게 안 하면,
 해 놓은 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꺼리게 보인다.
 10. 일을 해 놓고 지적받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11. 교회의 일들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멋지게 해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여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네모지게 할 일을 원으로 하고, 깎아서 할 일을 돌려서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보는 자들이 같이 따라서 하기
 싫어한다.

5. 사명을 주는 것, 사명을 줄 때

1) 사명도 나누어서 같이 해야 한다

1. 먹는 것만 나누어 먹고 즐기지 말고, 사명도 나누어서 같이 일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2. 자기가 하던 일의 때가 되어 더 큰 다른 사명을 하려면, 자기 사명을 다른 자에게 가르쳐 주어 그로 하게 해야 된다.
3. 일도 사명도 여럿이 해야 그 일과 사명으로 지치지도 않고, 이상적으로 하게 된다.
4. 100명이 있으면 모두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해야 100가지를 다양하게 하게 되고, 그들도 주인의식이 생겨서 자기 것으로 여기며 관리도 계속하게 된다.

15.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는데 안 해 보고 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지도자는 하고 싶어하는 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들로 하게 해라.
16.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해라.
17. 섭리사에 신앙의 실업자가 없어야 된다.

11.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못 한다. ‘능력’이 없어서 혼자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풍부하게, 완전하게도 못 한다. 그러므로 일을 나눠서 각자 개성대로, 특성대로, 존재하는 대로, 하나님과 주의 구상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머리삼고 행해야 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이 맡기신 일들은 수백 가지다. 그러므로 교역자도 각 부서의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골고루 일을 맡겨서 하게 해야 된다. 맡겼는데 잘 못 하면, 배워서 하게 해야 된다.

7. 혼자서는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아무리 좋은 큰 돌을 주웠어도 홀로는 큰 돌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과 같다. 지도자라도 못 가져오고, 머리가 좋아도 못 가져온다. 힘이 센 장수라도 혼자서는 힘들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서 가지고 와야 가지고 올 수 있다. 섭리사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못 한다고 안 맡기면, 항상 지도자 본인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소질과 재질이 없으니 능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없고, 또 제때 할 수 없다.
9. 모두 가르쳐 주고, 자꾸 일을 시켜보면 잘한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나만큼 못 한다. 약하다. 모른다.” 라고 하면서 안 맡기면, 그 차원의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니, 결국 못 하게 된다. 지도자는 머리가 되어서 하고, 나머지는 지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 몰라도, 어려워도, 힘이 약해도, 나름대로 일을 맡겨서 일을 계속하면서 배우고, 경험도 쌓게 해야 된다.

2) 개성과 재능, 소질대로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하라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되고 성장되려면,
일을 개성대로 잘 맡겨서 힘대로 능력대로 하게 해 줘야 된다.
캠퍼스는 캠퍼스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청년부는 청년부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가정국은 가정국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장년부는 장년부 지도자를 세워서
모두 그 차원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해야 된다.

19. 사람들은 개성의 특기가 많고, 탁월하다.
이들에게 골고루 일을 맡겨서 써야 된다. 그들에게 일을 안 맡기면 안 한다. 힘도 있고, 소질도 있는데 안 맡기면,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쓰고 재능들을 써 버린다.
20. 자기 힘과 재능과 소질을 하나님 안에서 우선권으로 쓰도록 믿고 일을 맡겨 주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 주고, 자기 생활을 위해서 하도록 소질과 재질을 길러 줘야 된다.

교회에서도 ‘개성의 왕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일을 맡기고 써야 됩니다.

* 혼자서만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는 ‘섭리사를 망치는 자’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라도 일을 맡기고 키워야 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하고, 지도자를 안 키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언제 혼자 했지?’ 하지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밑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소통한다 하면서 결국 자기 뜻대로 돌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3) 자기를 만들고 성장한 자들에게 사명을 준다

마음이 옥토 말인 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닭고 닭고 만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화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한 자도 있지만,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야 큰 사명을 줍니다.

35. 자기가 행할 사명만큼 신앙이 성장돼야, 그 사명을 하게 된다.
36. 성장도 안 됐는데 사명을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사명을 맡기고 대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 ◆ 하나님께서 <표상을 뽑으실 때>는
마치 100m, 1000m 뛸기를 해서 1, 2, 3등을 뛸듯 뽑으십니다.
그는 ‘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보는 눈과 생각들’이 있으니,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 ◆ 저마다 공적대로, 실력대로, 사연대로 뽑습니다. 또한 저마다 만든 대로 뽑습니다.
고로 온전히 행하며 자기를 흠 없이 만들기 바랍니다!

8. 항상 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10.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의 걸만 보고 판단 말고 속, 마음 보고 대하여라.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가 사고 냈다. 차도 기계도 겉은 좋은데 속이 안 만들어진 것은 쓰면 사고 난다. 고로 사람도 겉을 보고 만들어졌다 해도 절대 속을 보라. 마음·생각이 안 만들어진 자를 쓰면 사고 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그들을 쓰면 안 된다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마음 보고 택해서 쓰신다. 외모 보고 쓰지 말고 육도 마음도 보고 확인하고 사명 주어 행하게 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이 필요 없이 껴계 하신다. 껴은 자를 통해 대화하신다. 그레야 통하기 때문이다.

3. 껴은 자 중에서 유능한 자를 뽑아 쓰라.

4. 사람은 세월이 가야 오랜 기간 통해 껴어서 알게 된다. 당장 필요하면 가르쳐라. 훈련하고 껴게 하여라.

6. 껴는 대로 사명이다. 경험이 기술이다. 사명자로 세워도 되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가 파악도 해라.

5) 인재를 찾고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경매를 할 때도 ‘돈을 조금 더 높게 쓴 사람’ 이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되고 나는 잘 안 되나?’ 합니다.

잘된 사람은 ‘하나’ 라도 더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보니, <조금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데도 안 뽑고 안 씁니다.

지혜자는 <조금의 차이>를 알고 뽑아서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뽑힌 자’ 를 보고, 엄청나게 잘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뽑힌 줄 압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혹여나 ‘차이’ 가 나더라도 써라. 하다 보면 금방 잘하게 된다.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유능하게 된다. 그러니 모두에게 사명을 주고 써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큰 것이 그리도 빛나 보이고 커 보인다.

그러니 조금 더 해라. 그러면 뽑힌다.”

4) 껴은 자 중에서 유능한 자를 뽑아 써야 한다

1. 사람이 보기에 별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네가 한번 만들어 보아라.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해 보아라.

얼마나 힘든지 껴어 봐야 충격을 받고 안다.

나이가 들어어도 <자기>만 크려고 하다 보니,

이제 ‘자기를 대신하여 세울 자’ 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험악한 ‘영적 전쟁’ 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40~50세 먹기까지 죽도록 하여 ‘전도한 자들’ 은 있는데, ‘자기같이 가르치고 세운 자’ 는 정말 드뭅니다.

자기를 대신할 자를 안 키우고,

오히려 젊은 자들이 크면 거친 말과 행동으로 힘들게 합니다.

선생이 성령과 함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자기같이 키우는 자>가 있느냐? 정말 있느냐?

없다면,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레야 그가 ‘자기 몸’ 이 되어서 대를 잇고,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영광을 받는다.

<인재들>을 꼭 찾아요! 그리고 키워요!

<인재>는 찾아야 알고, 키워야 압니다.

◆ 교역자들도 자기 교회에 ‘인재’ 가 있는지 꼭 찾아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키우고, <부서>를 키우고, <인재들>도 찾아서 키워야 됩니다.

찾아야 찾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에 보화가 있어도, 안 찾으면 못 찾고 끝납니다. <인재>도 그러하고, <기준자>도 그러합니다.

어서 <인재>를 찾아서 환난 전에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 만 만족해합니다.

◆ 섬리사에서 생명들을 전도하여 잘 가르치고 키우고 ‘신부’ 로 길러서 “<멋진 제복>을 드리니, 이것으로 <멋진 건물>을 지어 보세요!” 하고 하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잘한 사람’ 입니다.

6) 회개하여 깨끗한 자, 본이 되는 자를 써라

교역자들이 ‘충성자들’ 을 안 세우고,

이성 회개도 안 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쓴다. <파악>을 안 해서 그러하다.

찬양, 지휘, 피아노 반주, 사회 보는 것

모두 ‘회개하여 깨끗한 자, 본이 되는 자’ 를 써라.

교회 담임 목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 기도해도 모른다. 한 명, 한 명 파악해라.

<이성>도, <공적>도 파악하지 않고 말기면 안 된다. 외모만 보고 그냥 말진다.

그러니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조개고 제물을 드려야 사탄이 역사를 안 한다.

죄를 짓게지 않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듯 하니, 사탄이 역사를 한다.

교역자들이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여 청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하다. 그만큼 몰라
서다.

7) 성장도 안 됐는데 사명을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

35. 자기가 행할 사명만큼 신앙이 성장돼야, 그 사명을 하게 된다.

36. 성장도 안 됐는데 사명을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사명을 맡기고 대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지혜 없이 ‘성장하지 않은 자’를 쓰지 말고 ‘성장한 큰 자’를 써라.

‘큰 자’를 쓰다 보면 ‘어린 자들’이 말씀 듣고 행하며 크게 된다.

그때 그들을 쓰면 된다.

8)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모르면 무지가 입력되고, 무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지한 자, 무식한 자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자를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고 인식이 바뀌면, 그때 써야 됩니다.

특히 선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허락 없이 하는 자는 일을 저지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고 자기 주관에 빠져서 미련하게 인식하고 한

것입니다.

인식이 바로 안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기도하고, 바로 알고 인식한 자에게 물어보고

인식을 바로 하고 해야 됩니다.

9) 자기가 좋아하는 자만 세우지 말아야 한다

31. 모두 보고를 제대로 하여라. 자기가 좋은 자만 세우지 말고, 전체를

보아라.

<전체 무개를 감당하는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쓰러진다.

32. <위치>가 중요하다. <그 위치, 거기에 해당되는 자>다.

33. <그 위치,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만 써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쓰면, 하나님도 주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다 본인까지 ‘하나님 역사의 줄’이 끊어지게 된다.

76. 한 차원 더 나은 자를 써야 된다.

77. 재능을 안 보고서 자기와 친한 자, 자기와 가까운 자, 외모가 뛰어난 자를
쓰면 성자가 분노하신다. 또한 그 분야에서 섭리사 전체가 손해를 본다.

78. 발달된 자를 써야 된다. 깨진 자를 써야 된다.

79.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켰더니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할 줄
알고 그것까지 그에게 시켰다. 그러나 못 하여 결국 철수시켰다. 그러면 안
된다. 개성대로 재능대로 잘하는 것만 시켜야 된다.

80.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하여 금메달을 땀다. 그래서 역도도 잘할 줄 알고
역도 대회에 출전시켰다. 결국 가서 실패했다. 그렇다고 수영 선수까지 못 하게
하면 안 된다. 수영 선수로만 쓰는 것이다.

섭리사에서도 이같이 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깨닫고, 즉시 말씀대로
행하여라. 저마다 타고난 대로, 개발한 대로, 재능대로 일을 맡겨라. 잘하는 것
만 맡기고, 못 하는 것은 잘할 때까지 맡기지 말아라. 일을 맡은 당사자도 당황
하고 피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81. 자기 애인이 육지에서 잘 된다고 해서 수영 대회에도 내보냈다. 결국 물을
먹고 바다에 빠져서 구조하여 꺼냈다.

82. 재능대로만 시켜라.

87. 자기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못 하는데도 자기가 한다고 오르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다. 많이 해 본 자를 시켜라.

88. 자기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시켰다가는 높은 나무에 오른 자가 흥시 떨어지듯 떨어진다.

89. 자기와 먼 자라도 잘하는 자를 세워라. 자기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실력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한다.

90.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만 보아라.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추천하여라.

마음도 몸도 떨리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선생도 나무에 안 올라가고, 나무를 잘 타는 민우 목사를 시키듯이, 너희도

잘하는 자를 시켜라. 선생도 못 하면 혀도, 고개도, 몸도 좌우로 흔들면서

나무에 안 올라가고 잘하는 자를 시킨다.

91. 토끼가 있는데, 왜 고양이를 시키느냐.

92. 돼지가 있는데, 왜 소를 시키느냐. 소가 주인이 소 같다며 떠맡는다.

93. 개가 말을 잘 듣는다고 개를 타고 가면, 허리 부러진다. 말이 없으면

차라리 돼지를 타고 가라.

10) 작은 생명, 큰 생명에 맞게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26. <작은 일>이 쉽다고 ‘큰 시간’을 가지고

쉽게 ‘작은 일’만 하면, <큰일>은 못 하게 된다.

<지도자나 목회자>가 마치 ‘아기’만 보고 있듯

‘크는 생명들 관리’만 하고 거기에 ‘큰 시간’을 투자하니,

‘전체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

<생명들>은 ‘틈 시간’에 쟁기고,

<부서나 단체, 기관> 등 큰 데다 ‘큰 시간’을 투자하여라.

27. <어린 생명들>은 속을 썩이기도 하니, 시간이 많이 든다.

이때는 다른 자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생명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목회자는 전체를 보고 부서들과 큰 일꾼들을 챙겨야 된다.

그래야 선교도 크게 되고, 큰 건물도 짓고, ‘큰일, 큰 살림’을 모두 이루게
된다.

28. <부흥이 잡히는 교회>는 목회자가 ‘큰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 부서와
단체들’을 살피고 관리한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은 관리 전담 목사를 세워 전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모두 즉시 그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작은 교회’를 먼치 못한다.

몇 명만 쟁기다가 목회 기간을 다 보내고 끝낸다.

생명들을 관리하는 전담자를 세워서 하고, <큰일>에 ‘큰 시간’을 투자하여라.

그러면서 수시로 생명들과 관리 전담자들을 점검하여라.

29. <작은 나무>에다 ‘큰 나무에 줄 거름’ 을 주고,
<큰 나무>에다 ‘작은 나무에 줄 거름’ 을 주면 서로 못 크다.
<작은 나무>에 퇴비를 많이 하면, 안 크는 것이다.
<큰 나무>는 크게, <작은 나무>는 작게 하여라.
<작은 나무>에 퇴비를 많이 하면, 뿌리가 작아서 못 빨아들인다.
30. <큰 시간>을 ‘큰 데’ 안 쓰고 ‘작은 데’ 쓰는 자는
집을 짓는데 큰 나무를 큰 기둥 세우는 데 안 쓰고 잘라서 작은 데 쓰는 자와
같다.
그러다 ‘큰 기둥’ 을 세울 ‘큰 나무’ 가 없으니, 작은 것으로 세우고 만다.
<교회 일꾼>도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등 큰 데는 큰
지도자를 세워라. 나이는 상관 말고 열심히 하는 자, 은혜로운 자, 잘하는 큰
자를 세워라.

6. 조직 운영

<조직>도 새롭게 해야 불이 붙게 됩니다.
각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조개야 간단하고, 불이 붙어 타게 됩니다.

1) 군대, 군인

<생각>은 ‘해’ 같이 뚜렷하고,
<행동>은 ‘전쟁터의 군인’ 같아야 된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며 적을 살필 때>도 ‘눈’ 으로 꿰뚫어 보며 자세히
살핀다.
이같이 하나님도 눈동자가 보고 지키듯 지키신다.

50. 지도자는 자기를 먼저 만들어라. 지도자는 머리다.
따르는 자들은 손발과 지체다. 머리가 돌아가야 모두가 평화롭다.
지도자가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따르는 손발들이 배나 고생한다.
51. 군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훈련하는 대로 육군이 되고, 공군이 되고, 해군이 된다.
52. 만들고 나서는 쓰기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키우고,
<영적 전쟁>을 위해 ‘장수’ 로, ‘사령관’ 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조직해야 절대 사탄과도 싸워 이기고 전쟁터의 적과도 싸워 이깁니다.

군대에서는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다.
육군 대장인 별 4개의 포스타는 별 3개짜리 쓰리스타를 특별히 다스린다.

쓰리스타는 군단장급이다. 이들은 별 2개 투스타를 다스린다.
투스타는 윈스타들을 다스린다. 윈스타는 대령들을 다스린다.
대령들은 한 단계 낮은 자인 중령을 다스리고,
중령은 한 단계 낮은 계급자인 소령을 다스린다.
대위는 중위 다스리고, 중위는 소위 다스리고,
병사들도 한 단계씩 밑에 있는 자 관리하고 가르치고 다스린다.
두 단계까지 다스리면 너무 강하다 한다.
섭리사도 한 단계 밑에 있는 자를 다스리고 관리하기다.
강자가 자기 밑 외에 더 밑에까지 다스리면 한계를 넘어 범위가 넘어간다.
가정에서도 장남이 밑의 자, 밑의 자는 그다음 자, 그다음 자는 바로 아래를
관리하며 가르쳐주고 다스리기다.
장남이 막내까지 다스리면 강해서 너무 무섭다.
못하면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자가 가서 돕고 다스려준다.
이것이 다스림에 대한 하늘의 순리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주 윗사람이 다스리려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크고 아는 자가 다스려야 된다.

2) 별, 개미

28. 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백성이다. 왕이 되지 못한다.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생겨서 다시 왕이 생겨야 된다.
29. 벌통에는 왕이 있다. 그 외에 모두 일벌이고, 왕벌을 시종드는 벌이다.
그 벌통에서 분봉한다면 또 왕이 필요하겠지만, 한 벌통의 왕벌은 하나다.
30. 한 시대가 지나야 다시 주권자를 뽑는다.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세상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다.

섭리사는 기성같이 개미 조직이 아닙니다. ‘왕벌 조직’ 입니다.
고로 머리는 하나입니다. 성자는 머리입니다.

이제 나 예수와 대역사를 하기 위해 너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교회를 합쳤으니, 화평으로, 희망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

되어라.
세상은 돌이요, 셋이요, 모두 각각이다. 왕벌 조직이 못 된다. 고로 항상 갈라져 싸운다. 왕벌 조직은 하나를 중심하여 육적으로 하든지, 영적으로 하든지 하나 되어 행한다.

3) 장기 (將棋)

장기를 둘 때 졸(卒)은 한 칸만 가서 공격한다.
마(馬)는 두 칸 간다. 두 칸을 한 번, 하나로 본다. 거기까지 간다.
상(象)은 세 칸까지 간다. 그것이 하나다.
모두 한 칸씩만 간다.
이와 같이 자기 사명도 한 차원 아래까지만 해야 딴 자 영역을 침범 안 한다.
사명 받고 한 차원 낮게 있는 자, 한 단계 밑에 차원까지만 하기도.
두 단계 차원까지 하며 침범하면 강해서 안 되고,
밑에 지도자는 멍하니 쳐다보기만 해야 된다.
만일 아래 단계에서 못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도 된다.
자기 영역에만 제대로 충성하여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를 통해 다스림 받고,
자기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만 다스려 준다.

4) 운동 (축구, 배구 등)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올림픽에 나가면 <잘하는 자>는 ‘메달’ 을 따고 <못하는 자>는 ‘빈손’ 으로 옵니다.

선생이 늘 배구와 축구를 보여 주면서
‘신앙의 조직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고 본을 보여 제시했습니다.

‘축구만 하지 말고 신앙도 이같이 하면서 운영하여라.’ 했습니다.
축구할 때는 팀 속에 조를 짜 놓고 완벽하게 조직해서 씩니다.
두 명씩 조직해서 뛰고, 공격을 당할 때는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씩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최종 수비로 세웁니다.

조직을 만들면 조져야 씩니다. 내가 축구할 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조직을 해야 상대를 조져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조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적입니다.

‘제 때, 제 위치, 제 사명.’
이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상적일 수 있다.
* 경기에 몰려다니지 말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서 조직적인 축구를 보여야 된다고 삶의 체험중에 깨달은 영감의 말씀.

5) 인제, 지체

- 8. 사람의 지체도 각각 지체대로 사명을 한다.
귀가 눈의 사명을 하면, 듣는 것으로 보는 것을 하니 문제가 생겨 안 된다.
사고 난다. 지체는 머리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맡겨도 안 된다.
- 9. 섬리사의 일도 머리가 할 일을 지체가 머리 되어 한 것은 다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생긴다. 고로, 절대 안 된다.
- 10. 자기가 머리가 되어 하는 자는 자른다.
이들에게는 사탄이 들어와 한다.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착오도 합니다. 모르고 행하니 실수하여 큰 손해가 갑니다.
전체를 보고 해야 씩니다. 고로, 항상 머리와 의논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까지, 천국까지 닿았습니다.
자기는 땅에서 공중으로 1m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이리함을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체와 같이
맡은 맡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되려 할 필요 없이 맡로서 만족해야 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기쁘고, 그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과 복을 탐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지체로 만족하며 평생 사는 것입니다.
머리는 각 지체를 개성으로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며 관리해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니 각 지체들을 그같이 대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관리해주십니다.

25.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는 자에게도, 못하는 자에게도 맡기지 않고, 시켜 놓고 나 하나님이 다 쥐고 행한다.” 하셨다.
26. 다 맡겨 놓으면, 그가 다 해서 그가 주인이 되고 그것의 머리가 되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모든 일을 같이 행하신다.

지체는 옆 지체로 인하여 편하면 안 씩니다. 한 다리가 편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뒷다리는 편하지만 밑에 눌린 다리는 저리고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편하기 위해 팔배개하고 자보세요. 얼마 안 가서 팔이 저려 못 견딥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못합니다. 머리만 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게 하고 다른 지체가 불편하면 결국 자기도 불편하여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형제’ 임니다.
지체는 각각 자기 수고로 인하여 편해야 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 다른 지체를 쓰면 안 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 밑에 사람을 삶의 도구로 쓰면 안 씩니다.
자기 편하려면 자기가 편하게 해야 씩니다.
팔이 편하려면 팔 운동하여 튼튼하게 해야 씩니다.

우측 팔이 편하라고 좌측 팔보고 안마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편하러 팔에게 주물러 달라고 할 것 없습니다. 자기가 운동해야 됩니다.
교역자도 안마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운동해요.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며 살고, 꽤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6) 줄다리기

*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정한 방향으로 힘을
쏟아 당겨야 한다. 섭리사 너희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정한 방향, 곧
나 예수가 있는 쪽으로 모든 힘을 쏟아 잡아당겨야 한다. 1년 동안 줄
잡아당기는 경기다. 모두 하나 되어 힘써 행하여라. 홀로 하면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도 멀하지 못한다. 고로 정말 홀로 하면 안 된다. 뭉쳐서 하나 되어
해야 된다.
합방한 교회들은 각각 예전에 하던 식대로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 자기
교회가 하던 식대로 하면 같은 편끼리 서로 줄을 잡아당기는 격이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기분이 날지 못하여 나와 함께 대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내가
말씀으로 지시하니, 모두 자기 종전의 방법을 버리고 나의 말씀에 따라 더 차원
높여 새롭게 해야 한다.
*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치어, 모델, 예술단,
장로단, 권사단, 교역자들, 교단, 기타 모든 부서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서
뛰어라. 개성으로 하되, 자기 식으로 하지 말고 뭉쳐서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교회 일도, 섭리사 일도 뭉쳐서 해야 된다.

7) 조팀구단

각 부서는 3명씩 한 조가 되어 관리하고, 한 조 위에는 7명씩 한 팀이 되게
조직하고, 그다음에 12명, 21명, 42명, 70명, 120명, 210명, 420명,
700명, 1200명씩 꼭 이같이 조직해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부서에도 조 편성과 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이상이
생겨도 교역자도 책임자도 모르고,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생명을 피어 가도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조 - 팀 - 구 - 단을 꼭 인원수대로 편성하고,

그 위에 조장 - 팀장 - 구장 - 단장도 세워서 관리해야 됩니다.

가장 밑의 단위인 ‘조’를 조장을 포함하여 세 명으로 두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조’라는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인원이 없어서 ‘팀, 구, 단’ 조직까지는 못 짜도
‘조’ 조직, 혹은 ‘팀’ 조직까지라도 짜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는 모든 것을 교역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하려면,
교회가 커서 바쁘니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조 - 팀 - 구 - 단> 조직을 짰으니, 특히 단장들과
구장들은 각 부서와 생명들을 적극적으로 밀착 관리하고, 팀장들과 조장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명은 교역자, 부교역자, 교사, 조장, 팀장, 구장, 단장 각 분야대로 있다.
그 분야대로 얹혀 있고, 그 분야대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명을 맡긴 대로 풀어 줘야 된다.

7. ‘사명’ 할 때 문제와 유의 사항

1)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라

일을 하든지 사명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극히 다치지 않도록 하고,
서로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 행할 일이다.

- 16.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펴 오면서
개인과 민족과 세계적으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 17.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운명>이 돌아갔다.
- 18. <사람>을 최고로 조심하여라.
- 19. 일할 때, ‘분별’하고 ‘알뒤편’을 보고 행해야 된다.
- 20. 조심하지 않으면, 하찮은 데서 죽기도 하고 ‘큰 문제’가 터진다.
- 21.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와 일체>되면 너희도 스스로 조심히 행하면서
살게 된다.
- 22. 스스로 존재하려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철저히 행하여라.

2) 일의 리듬을 잃지 말고 해라

- 13.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안 보인다.
<할 일>을 해야 그 일과 연관되어 연속 ‘할 일’이 보인다.
- 14. <일의 리듬>이 끊어지면, ‘할 일’이 많은데도 안 보이고 ‘일의
느낌’이 안 와서
일을 안 하면서 “나는 할 일이 없네.” 한다.

- 4. 하다가 안 하면 리듬이 끊어진다.
리듬이 끊어지면, 녹음테이프 끊어지듯 빈 바퀴만 계속 돌아간다.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다.

5. <제시간에 제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리듬이 끊어져 죽은 것’이다.

3) 사명의 선을 넘어서 행하면 안 된다

● 자기 사명을 충실히 하며, 남의 사명에 넘어가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자 사명, 교역자 사명, 부교역자 사명, SS 교사 사명, 캠퍼스 지도자 사명, 전도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대로 본인들이 증거하며 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명의 주인입니다.

● 어디까지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고, 사명의 선을 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의 지역까지 넘어가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개성대로 귀의 사명, 눈의 사명, 입의 사명, 코의 사명, 손의 사명, 발의 사명을 주어 쓰십니다.

● 섬리사 안에서 혼란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의 사명자가 아닌데 자꾸 나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양
이 소리 저 소리를 하며 머리가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의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됩니다.

● 사명을 맡긴 자가 아닌데 그가 행하면, 결국 안 된다. 잘한다고 하다 일반
저지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오래 배우고 행하면서 해야
한다.

● 섬리사에서 자기 사명을 보면 그 위치에서 그것 한 가지만 필요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부딪히는 자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쓰는 자가 잘 써야 됩니다.
한 가지에 쓰일 때는 걸리적거리지 않는데 다른 데에도 쓰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춘목시계>도 시간을 보는 것, 그것 한 가지가 필요해서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막상 일할 때는 시계 때문에 각종으로 불편하고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니 아쉽지만 안 차고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을 맡기면 문제를 일으키니 아쉽지만 안 쓰고 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할 때가 좋습니다.
◇ <옷>도 잘 차려입은 옷이라도 일할 때 불편하면
그 옷을 벗어 내던지고 일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섬리사의 일을 하면서 걸리는 자가 많습니다.

4) 죄의 문제와 회개

● 습관이 되어 안 끊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책을 가진 자들은 자동으로 직책 상실이다.
고로 먹으면 자기가 먼저 직책을 내려놓아라.
직책을 임명받고도 술을 먹는 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숨어서 술이나 담배를 하면 사람들은 모르니, 섬리사에서 같이 지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그 육도 혼도 영도 선을
넘어 ‘사망’에 처해 산다.
100% 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끊을 것을 못 끊으면, 결국 자기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된다.

● 자기는 <자기 죄>를 아는데 ‘숨긴 자, 속이는 자’는
계속 죄를 짓게 되어 마치 빛이 계속 불어나듯 <죄>가 더 커집니다.
후에 드러나면, ‘근신 기간’만 길어져서 회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따른 ‘형벌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흠>이 있으면 자기가 아니, ‘회개와 근신’을 해야 됩니다.
<죄>가 더 불어나기 전에 <흠>이 더 커지기 전에 회개와 근신입니다.
그리함으로 ‘빠른 복직’을 해야 됩니다.

5)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라

사람은 만물기에 달려있습니다.
흠 갖다 놓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배추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흠으로 배추를 심는 것보다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만물기에 달려있고 사용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 월명동을 개발할 때였습니다.
하나의 큰 돌이 땅에 박혀 있었는데, 개발할 때 걸리적거려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최망치로 돌을 깨다가, 더 스트레스가 솟아나 열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방법>을 달리하여 돌을 깨지 않고 흠을 파내어 보니,
<내가 찾던 보화 형상석>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깨지 말고 파내야 됩니다.
그러면 <귀한 인생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 <스트레스 있는 곳>에 ‘황금 알’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에 빠져 있지만 말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명의
황금 알, 뜻의 황금 알, 할 일의 황금 알 등 축복의 황금 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 <잘되게 예정된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게 판국이 기울어진다.
신같이 하면, 다시 되기도 한다.
◆ <행위>에 따라 안 되던 것을 뒤엎고 성공하기도 한다.
◆ <그 면>으로는 이미 안 된다고 결정되었으면
<다른 면>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더 많이 할 수 있다.
◆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6)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말아라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만 보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수십 가지’ 를 보고 하신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보고 해라.
할 때 하여라.

140.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치 말아라. 그로 인해 화가 온다. 확인하고 하여라.
141. 생각을 완전하게 하여, 앞날까지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나 보고 행하여라.
142. 과거에도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고 행하다 지옥 고통을 받았던 것들을 명심하고, 또 반복하여 행하다 지옥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라.
143. 사람이 자기 얻을 것 한 가지만 유일하게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다 그로 인해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지옥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실수하여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8. 사명 전환

1) 때마다 전환하며 새롭게 해라

때마다 ‘전환’ 하며 새롭게 하고 다양하게 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러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것>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휴거의 삶, 섬리의 삶>도 그러하고,
<각종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
따르는 자들은 다양하여 특기자, 재능자들이 모여드는데 지도자가 ‘다양성’ 이 없고
속 터지고 답답하게 ‘자기중심’ 으로만 행하니 바로 ‘한계’ 에 부딪히게 되고,
따르는 자들이 답답하다 소리치고,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거나 세상으로 간다.
세상은 다양하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려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생명들을 다양하게 잘 이끌어야 된다.
연구해라! 때마다 전환하면서 새롭게 해라. 차원을 높여라!
목회자나 지도자가 때마다 전환하며 새롭게 하지 못하면,
아예 <방법>을 달리하고 새롭게 하여 ‘다른 목회자나 지도자’ 로 교체하여 하게 한다.
운전할 줄 알아도 사고를 내면, 운전을 안 맡긴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이다.

“지겹지 않나? 아직도 안 질렸나? 지금도 계속 옛것을 하는데 아직도 안 질렸나?”
잠언을 받는 것도, 잠언을 쓰는 것도, 잠언을 교정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이것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질려서 못합니다.
엄청나게 썼습니다. 높이로 보면 몇 미터를 썼습니다. 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역사를 합니다. 안 질리라고. 요렇게도 하고
조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야, 새로운 세계로 가야 질리지 않으니깐.
여러분들도 운동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 방법을 달리 하면서 하고!
교역자도 전부다 방법을 달리 해서 하고, 질리면 방법을 다르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명들, 사명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한 것이

질리지 않느냐?
“아직도 안 질리느냐? 권태증이 없느냐?” “없어요..” “죽어서 그래.”
죽으면 권태증도 없어요. 따라 오는 사람들이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면 질린다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다,
자리바꿈이다!” 그랬습니다.

3. 자기 하던 일을 오래 하면 그것에 빠지고 체질 되어 새로운 것에 생각이
둔하여, 두고두고 확인한 후에, 그때서야 새것을 한다.
4. 지도자를 한 자리에 오래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쓰신다.

2)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명자에게 맡기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보고 그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른 사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일부분 맡긴 자의 의견대로 하고
모두 하나님의 일을 제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자에게 일을 안 맡기시고 그를 믿지 않고 다른 자를 통해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통해 모두 행하십니다.

3) 사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내려놓고 개인 신앙이나 하라

“사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직위나 직급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기 싫으면 스스로 내려놓고 차라리 자기 개인 신앙이나 하여라.
보는 자들이 ‘본’ 이 안 된다고 한다.
저런 자가 어떻게 ‘목사’ 나고 하며 하나님께 고한다.
그 사명의 위치에서 일도 안 하면서 급여만 받지 말아라.
일은 안 하고 급여만 타는 자다. 하나님께 빚지는 자다.
하나님이 보신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명을 맡겼어도 뺏긴다.

<자기 할 일>과 <자기 사명의 일을 귀히 여기고 행하는 자>가
황금 보좌의 좋은 위치를 차지한 자로서 행동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주와 함께 제시간에 떠나 잔치하고 누린다.”

4)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자들, 자기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 하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자들은 잠깐씩 쉬고 놀면서 ‘자기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자.

◆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무리하면 아픔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아프게 못 해 주나?’ 하며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리하는데, 안 아프게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몸이 다 망가집니다.
무리했을 때 몸이 아파야, 더 무리하지 않고 쉽니다.
아파서 쉬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쉬고 노느냐?”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도 너같이 일을 많이 하다가 쉬러 왔다.” 하시며
그와 같이 쉬면서 이야기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에 보면,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축복의 열쇠’를 놓고
가졌습니다.
가서 따 보면, ‘축복’이 나옵니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지쳐서 일의 맛을 잃지 말고,
마치 ‘일과 연애’ 하듯 지혜롭게 해라.
그래야 일이 쉽고, 일로 인해 힘을 얻으며 하게 된다.

5) 자기가 뒤집어져야 된다

요즘에 12월달이 되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 바뀌달라, 전환이 필요하다.”
“간사를 바뀌달라,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신입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시원찮은 애가 전도했습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전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좀 바꾸자. 교회를 전환하자. 이 교회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이동할까. 너무 좁으니까. 전환이 있어야 새로워지니까.”
이런 것을 영감으로 잡고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읊어주겠습니다.

시 - 전환

환경 뒤바뀌어져도
지도자가 뒤바뀌어져도
자기가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환경 지도자 뒤바뀌어지지 않아도
자기 생각 행동 뒤바뀌어지면
환경 지도자까지 뒤바뀌놓는 표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영감이 왔습니다. 자기가 뒤바뀌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역자만 바꾸려고 하고 왜 사람만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기가 뒤집어지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제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역자가 힘들어서 뺄뻔 거리고 있다면 교인들이 뒤집어지면
교역자는 같이 녹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지도자만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뒤집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어도
헛일입니다.
내가 설교해도 안 됩니다. 본인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영감으로 와서
착작 했습니다. 뜨끔하지요.

9. ‘사명’ 사원과 실천

1) 직책과 간판

선생님의 원래 이름은 '선생'이다. 사람들이 왜 선생이라고 하느냐고 한다.
총제라고 간판이 큰 것도 아니다.
시를 쓰면 시인이고, 운동하면 운동 선수라고 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처음에는 '집사'라고 했었다.
그것도 석막교회를 떠나면서는 그 칭호도 없어졌다.
그리고 외부에 소개할 때는 성경교수라고 했고 나중에는 선생이라고 했다.

선생님, 저는 일을 하려니까 사명과 간판을 주십시오.”
"뭘 하려고?"
"간판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집사 간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다. 서울에 와서 무직으로 있었다. 반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뭘 그렇게 직책을 따지냐? 직책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직책을 보고 따르면 안된다.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사람이 따라다녀야 한다. 충성해야지 무슨 직책을 나누냐? 네가 하고 싶으면 진도사나 목사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나같은 사람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간판보다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간판 자랑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집 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간판만 크면 뭐합니까? 간판이 명함만 해도 열심히 충성하는 회사는 안 망합니다. 간판만 많이 내리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자꾸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간판만 내리고 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바닥이 닳도록 뛰고 달리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 선생은 예전에 교회에서 사명을 주지 않았어도 내 할 일을 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를 온전히 만드는 일을 맡았으로 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때가 되어 개인적으로, 가정 단위로, 민족 단위로, 세계 단위로 하나님이 시대에 목적하신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고, 따르는 자들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재림 휴거와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셨다.

7. 교회에서 집사도 안 되고, 반사도 교사도 안 됐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할 일이 많았다. 그 할 일들은 교회에서 사명을 안 줬어도 너무도 많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사명을 줘서 하느냐. 전도가 누가 사명을 줘서 할 일이나. 자기가 꼭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된다. 천국을 위해 공력과 공적을 세우고, 저마다 영적 육적 집도 짓고 잘 살아야 된다.

2)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며 돌아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도사 증(證)을 만들어 주십시오.”

“증(證)이 필요없어.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짓이고 실적이 최고니 전도하고 돌아다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전도도 하며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아,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일게 집사(執事)입니다.” “전도 많이 하면 칭호(稱號)가 전도사이지 별 거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목사입니다.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이 목사입니까? 설교 잘하면 목사(牧師)이고, 말씀 잘 가르치면 강사(講師)인 것입니다.

이곳은 일반교회와 다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전도사 이상(以上) 취급을 해줍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오면 내가 깜짝 죽지 않습니까?

“이 애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고 많이 했다.”

전도사가 그렇게 높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전도사는 높고 목사는 더 높다는 잘못된 관(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셨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3) 더 크고 웅장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 <수석을 주을 때>도 ‘더 좋은 것’을 주우려고 해야 중지, <주은 것>에서 만족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 <신앙>도 그러합니다.
- ‘더 잘되도록’, ‘더 창대하게 되도록’, ‘더 크고 웅장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 <현실에 만족하며 편하게 사는 자들>은 ‘마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 <무한한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 선생님을 보세요.
-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행실>도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행하니까, 행할수록 ‘능력’이 커졌습니다.
- 지금은 <해 놓은 것>을 보고, 모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놀랍니다.
- <작다> -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게을리하다가는 문제도 생기고, 자기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 선생님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항상 ‘실 가닥같이’, 혹은 ‘실 가닥도 없는 데’서 했습니다.

4) 정밀하게 분명하게 섬세하게 해야 한다.

모든 일들을 허술히 해서는 안됩니다. 허술하게 하면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가증된 조건이라고 합니다.

첫번째에 10개 갖고 안된 일은 두번째 할 때는 20개 갖고 해야됩니다. 그렇게 가증된 조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5개 갖고 할 것을 못하면 두번째는 10개 갖고 덩벼 들어야 합니다.

넘어진 큰돌을 보러 오늘 새벽에도 3시에 나와서 다시 봤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는 길에 저 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돌은 돌로 받쳐야 합니다. 큰 바위를 갖다가 파서 1000년동안 안넘어가게 거기다 집어

쳐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허술한 신앙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아버지에게 혼났던 것은 대개 일을 시원찮게 한다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기도 생활한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원찮게 한다고 혼난 것은 당연히 혼날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기도 한다고 혼난 것은 지나치게 혼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일을 시원찮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신앙생활도 시원찮게 하면 안됩니다.

밥도 먹을 때 시원찮게 먹으면 안됩니다. 조금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는 것입니다. 시원찮다는 것은 시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등이 가려울 때 제대로 못긋으면 시원찮다고 합니다. 박박 긁어야 하는데 시원치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서기로 같은 것 같이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시원찮게 깨물어 넘기면 위가 고장납니다. 시원찮게 한 일은 결국은 고장이 납니다.

아주 정밀하게, 아주 난절하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절대 <필요한 삶>만 살기다

54.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삶>만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필요 없는 일’은 안 하고 ‘필요한 일’만 하고 살았다. 필요한 일만 한 것 중의 하나가 <한글>만 공부하고 바로 인생길을 찾는 것에 뛰어든 것이다. 대신 삶 속에서 <생활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15세 때 ‘군대에 장기 복무’를 신청하듯이 ‘신앙의 장기 복무’를 신청했다.

55. 선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필요 없는 일’을 자르고 행했기에 ‘인생 20년’을 절약했다. 그리고 인생 7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다. 하루만 틀렸어도 하나님의 매를 못 맞췄을 것이다.

그러나 순서 있게 할 것을 먼저 하며 했더니 매를 맞추게 됐다.

56.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한 자들이다.

10. ‘사명’ 과 성령

시편 126 :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6:39-40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4:2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0:31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4:1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깨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 :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6 : 3-10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전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4:11-13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3:7-12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4:7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1:6-8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15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4:2-5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2:11-14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히브리서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17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러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야고보서 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6-7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2-5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1. ‘사명’ 과 성경 인물

성경 역사를 봐도, 이 시대를 봐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같이 고통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한 자는
천국이나 황금천국,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

1) 예수님과 열두 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너무도 귀하고 많은 일들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을 맡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혼자 말씀을 전해 주고, 혼자 밥도 해 먹고, 혼자 땀에도 하고, 모두 혼자 했다.
그러다가 전도되어 사람이 많아지니,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 중에 열두 제자를 세워 놓고, 혼자 전할 수 없는 복음을 같이
전하게 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말해 주면서 각 마을 촌락에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 전해 주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데려온 자들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고, 메시아로서
머리가 되어서 해 줄 것들을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생명들을 다스렸다.

2) 모세

일을 하되 혼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둘이 할 일이 있고, 셋이 할 일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야 제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

<민수기 1장 1~16절>까지를 보아도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하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 각 족속 별로 족장을 뽑아서
그들이 자기 족속을 인도하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일을 쉽게 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일들을 두고도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홀로 하다가 따르는

자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하게 했다.
각자의 소질대로, 능력대로 맡기고 그들로 행하게 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항상 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한 일을 잘 했는지 보고, 또 교정도 하고, 다시 하게 하기도 했다.

3) 요셉

요셉이 살림살이를 잘 해서 각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남은 것을
국가에서 다 사들여서 창고마다 차고 넘치게 노적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운 자가, 깨달은 자가 해야 됩니다. 만 사람은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날카롭게 보고 확실히 본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일을 하라. 만 사람은 할 사람이 없다. 네가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정확하면!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손대고 함부로 하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고했으면
“네가 평소에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네 눈을 통해서 나에게
보고되게 하셨다. 니가 그 일을 책임져라.”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요셉에게 “네가 책임져라.” 한 것입니다.

요셉이는 3년 전만 해도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어. 그 여인이 지금도 그 짓하고
있는가. ’
했을 것입니다. 후드려 매리던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후였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석이 다 나옵니다. 좋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것을 합하면
13년쯤 됩니다. 13년 만에 그렇게 올라 뛰어버렸습니다.
‘아, 13년 만에 총리대신까지 되나?’
그거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한 달 만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하게 안 하십니다.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요셉의 심정, 요셉의
신앙을 또 본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좋아하니까. 아무리

감옥살이를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저 고마워하고, 좋아했습니다.

4)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기로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고,
해변의 모래같이 모인 블레셋 군대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자신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러야 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할 일을 하니 그를 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제1 창조>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하십니다.

5) 사도 바울

37.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사명을 제대로 하는 자다.
38. 왜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을까? 복음을
전하다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이 구원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 사랑하는 자의 한을 풀어주는
데 목숨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에베소서 4장 11~12절)에 사도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했다. 사도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기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 사도바울이 받은 사명은 ‘메시아를 통해 받은 새 시대 말씀을 전함으로 육도 영도 구원을 시켜주는 복음의 사명’ 이었다.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모여든 자들은 모두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고, 선을 이뤄야 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체가 같이 서로 일을 나뉘서 머리를 중심해서 해라.” 했다. 또 <로마서 12장 4~8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손과 발, 입과 귀, 눈과 코 등 모든 각 지체가 있어서 절대 머리를 중심해서 지체별로 나뉘서 하듯이 하나님과 주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행해 왔다. 또 “모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하며 주를 섬겨라.” 했다. 이 두 곳을 중심해서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사명자 혼자 하다가, 점점 커지면 홀로 할 수 없으니 개성대로, 사명대로, 소질대로 일을 맡겨서 하게 했다.

12. ‘사명’ 과 월명동

1) 월명동은 하나님 구상대로 삼위와 같이 개발했다

<월명동>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선생에게 그 구상을 맡기니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신 적이 되어 항상 보아도 은혜롭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이 지구 세상에서 그 얼마나 크고 큰 것인지 알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보고 그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른 사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월명동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상대로 안 되니 계속 무너트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트리고, 계속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월명동 둘 쌓을 때도 선생에게 사명을 줬는데 둘을 쌓을 줄 모른다고 세상 기술자들을 데려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통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상’ 을 보지도 못하니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세상 기술자들은 보내고, 하나님이 대화가 통하는 선생에게 구상을 보여 주고 가르쳐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정녕코 쌓고 뜻을 이루셨다.

2) 위치가 중하다

- ◆ <별것도 아닌 것>이라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귀한 작품’ 이 됩니다.
 <사람>도 ‘제 위치’ 에 있으면, 그리도 귀합니다.
- ◆ 하나님은 자연성전을 구상하실 때,
 <제 위치>에 ‘둘’ 을 놓고 ‘나무’ 를 심게 하셨습니다.
- ◆ <제1폭포 위쪽의 소나무>도 별것이 아닌데, 캐다가 ‘폭포 위 좋은 위치’ 에 심으니
 그리도 ‘멋있는 작품’ 이 되어 눈에 띕니다. 다 ‘상징’ 으로 심은

- 것입니다.
- ◆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치>가 중하다.
 <위치>에 따라 별 볼 것 없는 것도 귀하게 되고 눈에 띈다.
 <위치>가 ‘사명’ 이다. ‘신급’ 이다. ‘직급’ 이다.
 <위치>는 ‘자기 할 일’ 이다.”
 - ◆ 어떤 사람은 <5년을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는 신급>을 켜는데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위치>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 보람이 없습니다. 결국 뺏기기까지 합니다.
 - ◆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진도사>를 하다가,
 열심히 진도하여 <강도사 신급>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귀히 행하면서 ‘그 위치’ 에 가니,
 <그 위치>를 안 뺏기고 귀히 여기며 삽니다.
 고로 보람도 크고, 기쁨도 큼니다.
 - ◆ <기도동산>도 <위치>에 따라서 ‘왕관 형상’ 으로 만들어 놔습니다.
 - ◆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을 구상하셨습니다.
 <해 뜨는 조산 쪽>에는 ‘어떤 것’ 을 의미 있게 만들었을까요?
 (잠시 쉬었다가) 네! <3.16 휴거기념관>입니다.
 해가 떠오르듯이, 성자와 보낸 자와 시대의 신부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휴거>로 떠오른 장소입니다.
 자연성전을 다 건축하고, 기념으로 구상하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 ◆ <선생이 만든 곳>은 그 위치에 가면 값도록 만들어 놔습니다.
 신선 장소, 전망대, 사진 찍을 곳, 구상 받는 장소 등 다 있습니다.
 - ◆ <제 위치>에 안 만들면, 마치 <몸의 지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표가 나게 이상합니다.

- 고로 <월명동>은 ‘위치’ 를 제대로 해서
각종 존재물을 놓고, 둘을 세우거나 눕혀서 만들었습니다.
- ◆ <약수샘>도 위치를 ‘산 밑’ 으로 정하고,
 그곳의 물줄기를 따라서 ‘운동장 가운데’ 에서 옮겼습니다.
 <정확한 위치>입니다.
 - ◆ <세 개의 폭포>도 ‘제 위치’ 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위치’ 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가장 큰 골짜기>에는 폭포를 ‘작게’ 만들고,
 <가장 작은 골짜기>에는 폭포를 가장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위치> 때문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 <건물>도, <존재물>도 ‘배경과 위치’가 안 맞으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사람의 지체>도 그 지체가 ‘제 위치’에 안 있으면,
 안 어울리고 매치가 안 됩니다.
 <사람의 지체>도 ‘위치에 따른 매치’ 이고,
 <자연성전의 각종 것들>도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른 매치’입니다.
 ◆ 왜 자연성전을 돌로 쌓았는가?
 <환경>과 <그 존재물>이 맞아야 합니다! <월명동의 환경>은 ‘돌’과
 맞습니다!

그래서 ‘돌 조정’으로 했습니다.
 마치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듯이,
 <사람의 그 위치, 그 자리>에 정확히 ‘금단의 열매’가 있듯이,
 <월명동의 환경>이 ‘돌 조정’과 매치가 됩니다.
 ◆ 눈 위치에 눈이 있고, 코 위치에 코가 있고, 입 위치에 입이 있고,
 위장 위치에 위가 있고, 심장 위치에 심장이 있듯이,
 <자연성전>도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있습니다!
 잔디성전, 운동장, 연회장, 호수, 정자, 청기와집, 3.16 휴거기념관, 약수샘,
 등산로, 산책로, 백보좌 형상 야심작, 왕관 형상 기도동산 등
 모두 ‘그 위치’에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3) 돌 보화처럼 사명도 귀하게 여겨라

1. 돌 보화도 귀하게 여길수록 귀한 돌을 얻게 된다.
 모든 것도 그러하다.
 사명도 귀하게 여길수록 각종으로 더 주시고, 가치를 깨닫게 되고,
 충성으로 할수록 보람이 있다.
 2. 값비싼 귀한 수석도 알지 못하면 보아도 즐지 못하듯,
 사명도 귀하게 알지 못하면 각종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4) 낙타바위

◇ 낙타바위도 우측 것은 일부 길로 사용하니
 여러 번 그 길을 파내고 더 크게 파내려 했습니다.
 그럼 길을 다시 내야 되니, 힘들고 번거로워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 끝쪽을 파내어 드러내서 100% 그 둘이 다 보입니다.
 더 웅장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 저마다 모두 자기의 물론 개성 소질 제능 사명을 드러내야
 자기 존재 차원을 더 높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개발입니다. 더 행함입니다. 그러면 웅장해집니다.

5) 구상 소나무, 몸부림의 걸작술, 낙타바위

36. 월명동 나무도 만드니 보물이 되었다.
 ‘월명동 구상 소나무’도 사람들이 손대면 제 생각대로 자르고 기를까 봐,
 하나님이 숨겨 놓고 키우시다가 다 크니 보이셨다.
 ‘하나님 길’ 계단을 다 만들어 드리니, 그 소나무를 선물로 보이고 주셨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만드니 나무가 다 클 때까지 그냥 두어야지,
 손대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을 버린다.
 다 크면 그대로 자연스럽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구상 숲’을 깊이 보아라.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37. 각종 작품 소나무들도 다 그러하다.
 ‘몸부림의 걸작술’도 뿌리가 다 나왔다고 흙을 한 차 실어다 덮었으면
 ‘뿌리 작품’을 못 보았다. 뿌리가 90% 나와 있다.
 그같이 만들기까지는 세상 연도로 150~200년이 걸렸다 하겠다.
 38. 낙타바위도 숨은 보화다. 아무도 몰랐다.
 전설 같은 큰 바위를 달라고 선생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저 돌, 조금만 보이는 돌을 파라.” 하셨다.
 10~20명씩 6개월 정도 작업하여서, 웅장한 형상의 돌 두 개를 파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작품이다.
 숨긴 보화다. 깨내야 보화이듯이, 저마다 사람도 드러내야 보화다.

6) 서어나무 뿌리왕

성령이 말씀하시길,
 가자 때가 됐다. 또 틈을 타서 조깅하자. 피눈물 나게 몸부림쳐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할 수 있다.
 가는 길에 성전의 나무도 관리하자. 저기 저 나무를 파 보자. 묻힌 것
 파내주자.
 파다 보니 개미가 신도시를 이뤘네. 그 많은 사람 지나나더도 모르지 않느냐.
 정리하고 보니 ‘뿌리왕’이 또 생겼다. 뿌리의 넓이가 2미터가 넘는다. 놀랍지
 않느냐.
 사람들도 발굴하자. 인재를 찾아내자.
 나무 이름은 서어나무. 150년 이상 된 나무다. 위치는 기도 동산. 화제 때에도
 살아남은 나무다.
 하나님이 다 키워놓고 성령과 통하여 다 밝히셨다. 한 나무에 여섯 작품이
 들어있다.
 <뿌리왕 소나무>에서 직선으로 7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월명동을 그렇게 다녔어도 너나 나나 못 봤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건성으로 다녀서 그렇다. 사람도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상상해 보아라. 궁금하게 사진은 안 보낸다. 그동안 자세히
 안 본 대가다. 기도해서 환상으로 보아라. 나무의 크기는 60전이다.
 이와 같이 섭리 안의 인제도 찾고, 생명들을 찾아 전도하자.
 이후로 전도한 공적자에게는 눈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성령의 마음이다.

7) 개인은 ‘개성의 왕’ ‘단체의 왕’

37. <개인>은 각자 ‘개성의 왕’, 자기가 속한 ‘단체의 왕’이다.
 38. 돌과 물, 각종 동물과 식물, 건물 등 모든 만물이 ‘상호 존재’해야
 단점이 없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같이 <사람>도 각각의 존재물과
 같아서 모두 개성으로 ‘상호 존재’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39. <월명동 자연성전>도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난다. 산이나 나무가
 빠지든지, 돌이나 바위가 빠지든지, 폭포나 호수가 빠지든지, 건물이 빠지든지,
 사람이 빠지든지, 운동장이나 잔디밭이 빠지든지 하면, ‘전체’를 봤을 때

표가 나게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감소된다. 이같이 섬리사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나고 단점이 보인다. 말씀과 잠언, 전도, 강의, 관리, 설교, 기도, 찬양, 성전 조경, 예술, 각 기관이나 모임 등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단점이 보이고, 표가 나게 그 아름다움과 전체 구상이 감소되어 보인다.

40. 하나님은 섬리사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전체를 볼 때 한 가지가 빠진 격으로 보시고 ‘후자’를 세워 다시 채우신다.

41. <사람의 몸>도 지체 중의 하나만 없어도 표가 나듯이, 각 분야에서 ‘개성의 왕’이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나고 모순이 보인다.

42. <만물>도 ‘만들기’에 달렸고, <신앙>도 ‘만들기’에 달렸다.